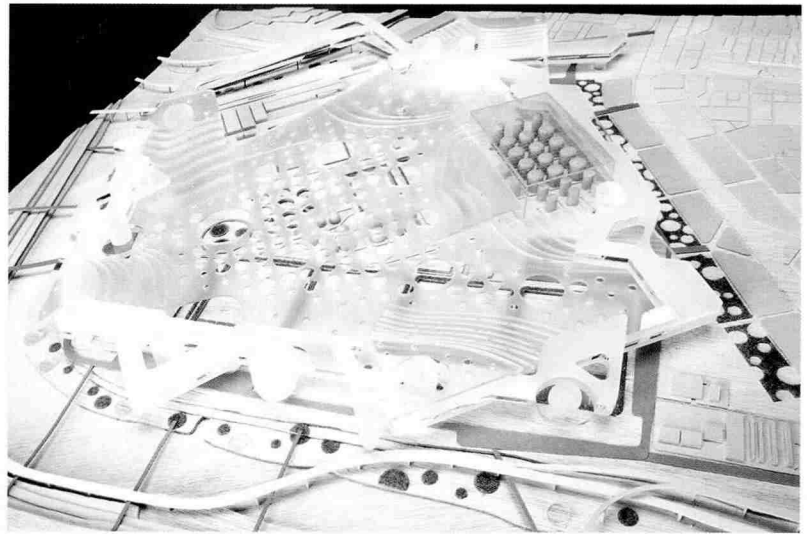


Recycling Carpet. 중랑하수처리장을 활용한 재생공원 계획안



박성수, 최상웅, 박정선 /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건축설계전공

도심속에 고립된 땅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먼저 프로그램들을 대지의 경계부분에 고리 모양으로 배치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단지 내부에 자연스러운 녹지공간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저층부를 띄우고 상층부에는 인공경사를 만들었다. 1. 체험을 위한 공간 2.도심속의 인공 자연 3.새로운 형태의 대지 4. 에너지의 재활용.

거대한 단지 내에서 놀이와 문화를 함께 즐기며 자연 속에서 걸어다니는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인공 언덕과 다양한 연못, 그리고 새로운 공간(republic space)들을 프로그램들 사이사이에 삽입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런 republic space들은 사람과 동·식물들을 자연스럽게 단지 내부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재생단지내의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혜택을 제공해 줄 것이다.

